



3·1운동 100주년 기념 문화 행사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일제강점기 징용의 역사를 통해 평화의 의미를 살펴보는 전시회가 진행되며 추모 음악회도 열린다. 종교계에서는 추도식도 진행한다.

# 일제강점기 강제 연행의 생생한 역사

하정웅미술관 4월 24일까지 '잊혀진 사람들...' 전  
판화 '히메관음상 비밀'·설치작 등...28일 세미나

'제국주의 불행한 시대의 증인으로, 역사를 기억하고 반성하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 하정웅미술관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연행의 역사를 살펴보는 전시를 마련했다.  
'잊혀진 사람들, 끝나지 않은 이야기-강제연행의 역사, 다자와 호수 히메관음상의 비밀과 하나오카 사건' 전(4월24일까지)은 제국주의 전쟁의 도구로 징용돼 희생당한 민간인 노동자들에 대한 목격과 증언을 생생하게 담은 작품을 통해 인권과 인류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획이다. 전시작은 하정웅 컬렉션을 중심으로 작품을 선별했다.

관을 다룬 판화 '하나오카 이야기'다. 히메관음상은 다자와호수 주변에서 벌어진 조선인 징용의 역사를 80여년 동안이나 지켜본 증인과도 같은 조각상이다. 댐 공사 중에 벌어진 조선인들의 희생을 위령하기 위해 세워진 히메관음상은 1939년 건립됐지만 50여년 동안 은폐됐다. 1990년 건립취지문이 발견된 이후 지속적인 위령활동과 진상규명 활동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히메관음상을 둘러싼 강제연행과 조선인 노동자들의 희생과 은폐, 추적과 진상규명, 위령활동에 이르기까지 80여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담은 하정웅컬렉션 작품과 아카이브자료 200여점을 보여준다.  
두 번째 내용은 아키타현 하나오카 구리광산에서 벌어진 중국인 노동자 학살사건을 증언한 목판화 '하나오카 이야기'다. '하나오카사건'은 1945년 6월 하나오카(花岡) 구리광산에서 중국인 강제노동자들이 가혹한 노동과 학대, 굶주림에 항거해 봉기했으나 418명이 체포돼 처형당하거나 굶어죽은 잔인한 사건이다.  
'하나오카 이야기'(목판화 57점)는 목



'하나오카 이야기' 판화 시리즈 중 '조선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

격자 증언을 바탕으로 목판화와 서사시로 표현돼 1951년 출판된 목판화집이다. 이 판화는 아키타 '일중우호협회' 스키 요시오의 기획 아래 기타 세츠키, 니이 히로하루 등 예술가들이 공동제작한 작품으로 하정웅이 수집해 2003년 광주시립미술관에 기증했다.  
전시와 연계한 세미나도 열린다. 28일 오후 5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연행과

진상규명-일본 다자와 호수 주변과 하나오카 광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는 30여년 동안 아키타 지역 조선인 강제연행 문제를 연구해 온 차타니 주로크 전 일본민족예술연구소장을 비롯해 김정훈 전남과학대교수(근로정신대시민모임 대표), 김인덕 청암대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문의 062-613-715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939년 다자와 호수 히메관음상 모습



박병희 작 '평화의 사자'



##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ACC '소' 등 6편 선정 전국 순회 공연 나선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직무대리 이진식·이하 ACC)과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이 창제작한 연극 '소' 등 6개 작품이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으로 선정돼 올 한해 전국의 관객들을 만난다.

아시아문화원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주관한 '2019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서 아시아문화원 창제작 공연 6개 작품이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우수공연 작품에 대해 초청경비를 지원하고 전국 지역문화예술회관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우수 공연으로 선정된 작품은 ACC 캐릭터를 활용해 만든 어린이 뮤지컬 '시아와 친구들: 트레저헌터즈'를 비롯해 '판소리 오셀로', '연극 소', '콩짜 두 번째 이야기-얼쭈', 영화 더빙쇼 '자유결혼', 어린이 공연 '여왕과 나이트게일<사진>' 등이다.  
선정된 작품들은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여수GS칼텍스 예술마루 등 광주·전남을 비롯해 경남 거창문화재단, 강원 속초문화회관, 충남 태안문화회관 등 올 한해 전국 무대를 돌며 공연을 선보인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위안부 피해자 닛 달랜다

광주 불교계 27일 영산재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불교의 영혼전도 의례인 영산재가 펼쳐진다.

광주 불교계에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로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3호 광주전통불교영산회 주관으로 27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진행되는 이번 영산재는 희생자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전통 의식이다.

'일본군 위안부 및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를 위한 영령 추모 영산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모두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 기념행사에 이어 2부에서는 전통 영산재 이수자 스님 30여 명이 참여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전통 의식을 집전할 예정이다. 문의 010-6650-744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무지크바움 신춘음악회 '대한독립의 꽃, 유관순' 3월 1일 나주문예회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신춘음악회 '대한독립의 꽃, 유관순'이 오는 3월1일 오후 7시 나주문예회관에서 열린다.  
(사)문화공동체 무지크바움이 기획한 이번 공연은 나주시의 후원을 받았다. 무지크바움은 역사적 사건을 시민과 함께 기억하고자 5·18광주민중화운동 헌정음악회, 나주학생독립운동 헌정음악회 등을 열고 있다.

'대한독립의 꽃, 유관순' 음악회에서는 무지크바움 챔버오케스트라가 유건우씨의 지휘와 함께 연주한다. 김수연·주보람·박소정·김용상·서승현·서윤희·정하나(바이올린), 임지선·이지은(비올라), 박효은·김



지휘자 최준영 테너 최동규

도영(첼로), 장관수(더블베이스)씨가 출연한다.  
먼저 3·1 운동 헌시인 '다시 오신 대한독립만세'(김종)와 '꽃의 독립'(전숙) 등을 낭독한다. '강 건너 봄이 오듯'(소프라노

김경림), '내 맘의 강물'(소프라노 양현애), '산노을'(테너 최동규), '정산에 살리라'(바리톤 민덕홍) 등 우리 가곡도 무대를 채운다. 성악 앙상블 슈테르네는 레하르의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중 '빌라의 노래'와 송창식의 노래 '아름다운 나라' 등을 부른다.  
최준영씨가 지휘하는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새아세아 파랑새야'와 '엄마야 누나야'를 김현경씨의 해금 연주와 함께 노래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연주자와 청중들이 함께 3·1절 노래를 부르며 무대를 마무리한다. 전석 초대. 문의 010-6422-1991.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QR code and text: 광주일보 뉴스 NAVER 포스트에서 보세요

Advertisement for IPALG waterproofing services. Text includes: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대안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 정기점검'. Contact info: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Advertisement for K Global Hearing Aid. Text includes: '자연의 소리...',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